



'우아한 마음' 노랑꽃창포  
· 나비 날개 모양의 꽃잎  
· 수질정화 능력 5배 이상 탁월



'위로' 꽃양귀비  
· 마약 성분 없어 합법적인 꽃  
· 하루 만에 지는 꽃잎



'쾌활' 유채  
· 드넓은 대지에 노란 물결  
· 익은 씨채소·종자는 기름으로



'희망' 금영화  
· 노랑·주황·빨강 오밀조밀  
· 해가 지면 꽃잎 담고 잠잘 채비



윤슬보

# 위로 반꽃~ 희망 얻꽃! ...황룡강에서

남만 야경·환경까지 생각  
황룡강의 또 다른 볼거리

## 윤슬보·용작보

황룡강을 뱃내는 것은 강변의 꽃들만이 아니다. 황룡강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새로운 시설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된다.

장성군 최근 황룡강 일원에 '윤슬보'와 '용작보' 2개의 가동보(하천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유수단면 일부 또는 전부를 차단하고 그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수리구조물)를 설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남만 야경에 환경까지 고려한 이 시설들은 경관 개선은 물론 수변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삼장미터널 인근에 설치된 윤슬보는 날개 모양의 구조로 되어 있어, 강물이 그 위를 파도 치듯 흐른다.

잔잔하던 수면이 윤슬보를 지나면 독특한 파형의 무늬를 만들어낸다. 또, 보의 안쪽에는 오색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해 질녘이면 남만 가득한 야경을 펼쳐내 보인다.

문화대교와 황룡행복마을 인근에 설치된 용작보는 물을 모아놓는 기능에 좀 더 충실한 시설물이다. 약 1.8m 깊이까지 강물을 모을 수 있어, 강 풍경을 풍성하게 완성한다. 또 독특한 물넘이와 조명시설도 갖추고 있어 어둠이 짙어진 이후의 모습도 수려하다.

황룡강에 설치된 가동보들은 환경 개선과 수해 방지도 효과적이다. 수량이 따라 수문을 개방해 수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낮출 수 있으며, 퇴적토가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수도 있다.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강 유역의 생태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한 때 폐기물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황룡강이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다"면서 "다양한 꽃밭과 함께 노랑꽃창포 단지 조성, 가동보 설치 등을 통해 황룡강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및 생태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다섯 가지 주제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해 '황룡강 국가정원 시대'를 여는 것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황룡강 봄꽃 소식

장성 황룡강에 온갖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모양도 빛깔도 가지각색이건만 한 데 어우러짐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다. 화사한 봄꽃들이 피어난 황룡강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안을 안긴다. 상쾌한 강바람을 맞으며 꽃길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황룡강을 찾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꽃 소식들을 모아봤다.

#### ◇ 강변 따라 황금 물결 '노랑꽃창포 단지'

장성군은 지난 2019년부터 황룡강 일원에 노랑꽃창포 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현재 제2황룡교부터 장안교에 이르기까지, 황룡강 꽃길의 거의 전 구간에 걸쳐 '노랑꽃창포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노랑꽃창포는 나비의 날개 모양이 연상되는 독특한 꽃을 피운다. 군락을 이뤄 만개하면 인상적인 풍경이 연출된다. 최근 개화 시기를 맞이해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렀다.

노랑꽃창포는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 일반 수생식물에 비해 수질정화 능력이 5배 이상 탁월한

서삼교·개천인도교 등 금영화...제2황룡교~장안교 노랑꽃창포 만개  
진원면 등 8개 지구 48.1ha 농지에 유채...건보공단 뒤 인생샷 포인트  
황룡행복마을·문화대교 아래 선홍빛 꽃양귀비, 안개초와 환상 조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장성군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황룡강의 용존산소량은 2019년(9.8mg/L)보다 크게 높아진 11.9mg/L를 기록했다.

황룡강을 노랗게 수놓은 노랑꽃창포를 감상하고 싶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다른 봄꽃에 비해 개화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다.

◇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의 아름다움 '유채단지'  
유채꽃은 늦봄에서 초여름 무렵 피어나는 대표적인 노란색 꽃이다. 장성군은 황룡강 인근의 빈 농지 곳곳에 유채단지를 만들었다. 진원면, 남면, 장성읍 등 8개 지구에 48.1ha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인생 사진'을 남기기 좋은 곳으로는 장성을 건강보험공단 뒤편 유채단지를 추천할 만하다. 탁 트인 부지에 가득 피어난 유채꽃과 펼쳐져 있는 야트막한 산자락 풍경이 가슴을 설레게 한다.

힐링허브정원 인근의 유채단지는 접근성이 좋다. 주차장, 황룡강 꽃길 등과 가까워 산책하듯 둘러볼 수 있다. 맑은 하늘 아래 고요하게 펼쳐진 유채꽃밭 풍경이 아름답다.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피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영화와 꽃양귀비, 끈끈이대나물, 안개초 '눈호강 코스'

제2황룡교와 서삼교, 개천인도교 등지에는 금영화가 피어 있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노란색과 주황색, 빨간색 꽃이 오밀조밀 피어 황룡강 꽃길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금영화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다. 햇볕이 내리쬐 때에는 하늘을 바라보고 한껏 꽃잎을 펼치지만, 해가 지고 나면 수줍게 꽃잎을 오므리고 잠자

리에 들 채비를 한다.

꽃말은 '희망'으로, 금영화를 감상하는 동안 가슴 속을 '긍정 에너지'로 가득 채워준다. 황룡강 뿐만 아니라 장성호 수변길 입구에도 금영화가 피어 방문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선홍빛 꽃양귀비는 노랑꽃 위주로 장식되어 있는 황룡강 꽃길에 신선한 느낌을 준다. 눈에 띄는 고혹적인 매력에 깊은 인상을 남긴다. 제2황룡교 건너편 황룡행복마을 인근과 문화대교 아래에서 주로 감상할 수 있다.

제2황룡교에서 상류 방면인 문화대교 쪽으로 걸어가면 꽃양귀비와 분홍빛 끈끈이대나물, 안개초가 고루 심어져 있는 꽃길도 찾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서삼교-문화대교 방면에 팜파스그라스 등 5종의 그라스(grass) 종류를 심어 '그라스 정원'을 조성했다. 감상이 가능한 시기는 9월 이후로 예상된다. 또 황미르랜드 연꽃정원 인근에는 8만본의 해바라기를 식재해 해바라기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벌써부터 황룡강의 가을 풍경이 기대되는 이이다.

/김대서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황룡강변이 형형색색 봄꽃들로 물들고 있다. 주민들이 '희망'이란 꽃말을 가진 금영화 단지를 지나 산책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